

“카뱅 상장 흥행... 그룹 시총 100조 돌파”

카뱅, 상장 첫날 금융 대장주 등극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테인먼트
주요 자회사 연이어 상장 준비중
커머스·콘텐츠 등 신사업에 주목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해 우려 과제



카카오 그룹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었다. 삼성과 SK, LG, 현대차 그룹에 이어 다섯 번째다. 자회사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증시 상장도 힘입은 결과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를 카카오모빌리티 등 또 다른 자회사 상장을 준비하는 한편, 콘텐츠 등 신사업과 해외 진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카카오 그룹사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 6일 장마감 기준으로 카카오는 64조6690억 원, 카카오게임즈는 6조1307억 원, 넷플릭스는 7579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입성한 카카오뱅크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33조1620억 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4개 종목 시가총액을 더하면 총104조7196억 원이다.

국내 기업집단의 상장 그룹사가 시가총액 10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카카오보다 덩치가 큰 그룹은 삼성(약 753조 원), SK그룹(약 212조 원), LG그룹(약 153조 원), 현대차그룹(약 149조 원)이다.



자회사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면서 카카오 그룹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카카오 판교 오피스 로비에서 키크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직원. 사진제공 | 카카오

카카오뱅크는 6일 5만3700원에 거래를 시작해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6만9800원에 장을 마쳤다. 상장 첫날 KB금융(21조7052억 원)을 누르고 금융 대장주가 됐다. 코스피 전체에서도 포스코 등을 제치고 시가총액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 그룹의 시가총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자회사들이 연이어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올해 하반기에는 카카오페이를, 내년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대기 중이다. 향후 현대차나 LG그룹의 시총을 뛰어넘을 것이라 전망까지 나오는 이유다.

카카오의 실적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상장 날인 6일 매출 1조3522억 원, 영업이익 1626억 원의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2% 66% 늘어난 수치다.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최근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한국 최고

부자가 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자체 기준인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김 의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한국 최고 부자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독과점 우려 등은 해결과제

카카오는 2010년 선보인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우기도 했다. 2014년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했고, 2016년에는 로엔을 인수했다. 신규 사업 진출도 꾸준히 이어졌다. 테크핀(카카오페이)과 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했다. 지난 2분기 카카오의 매출 가운데 신규 사업 비중은 60%를 넘겼다.

계열사도 그만큼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8월 기준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128개. SK그룹(156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4월 30일부터 7월 31일 까지 최근 3개월 동안 신규 편입한 계열사 수도 기업 집단 중 가장 많은 13개로

카카오 주요 계열사 (8월 기준 128개)	
상장 계열사	
▶ 카카오톡(인터넷 전문은행)	
▶ 카카오게임즈(게임)	
비상장 계열사	
▶ 카카오모빌리티(스마트모빌리티)	
▶ 카카오페이(테크핀)	
▶ 카카오엔터테인먼트(콘텐츠, 음원 등)	

나타났다. 업계는 카카오가 커머스와 콘텐츠, 모빌리티 등 신사업을 기반으로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존 전통 산업과의 마찰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근엔 '1577-1577'과 손잡고 전화콜 대리 시장에 진출한다고 알려지면서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카카오는 이와 관련 "콘텐츠, 핀테크, 기업용 솔루션, 스마트모빌리티 등 자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미래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투자와 전문성,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인수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또 기존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영역이 아닌 카카오의 플랫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성장해왔다"며 "카카오는 카카오톡 등 플랫폼 기반으로 생태계를 만들면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4차 산업,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에 투자해 이용자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기술 경쟁력을 키워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onga.com

LGU+, 'U+클라우드보안팩' 출시



LG유플러스는 기업(B2B) 고객이 합리적인 가격에 PC 보안 솔루션 7종을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U+클라우드보안팩'을 출시했다. PC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LG유플러스의 IDC(인터넷 데이터센터) 내 클라우드플랫폼 기반 서비스형 보안(SaaS) 형태로 고객사에 맞춤형 PC보안 패키지를 제공한다. 제공 서비스는 문서암호화(DRM), 통합백업, 유해사이트차단, BIZ원격주치의, 개인정보보호, 정보 유출방지(DLP), 랜섬웨어 방지 등이다. LG유플러스는 고객사의 수요와 예산에 따라 원하는 대로 보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할인팩 3종'을 업종별로 제안할 예정이다.

11번가, 투썸과 기획한 피크닉 체어 한정판



11번가는 투썸플레이스와 함께 기획한 11번가 단독 '피크닉 체어'(사진)를 한정판

매한다. 독특한 '좌식형' 제품으로, 등받이 각도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완전히 펼쳤을 때 일자형 매트로도 활용할 수 있다. 180cm 신장의 성인 남성도 등받이에 기대 다리를 완전히 쭉 펴고 앉을 수 있으며, 약 1.7kg(보관 가방 포함)의 경량 체어로 휴대도 용이하다. 내구성이 강한 방수 원단으로 제작해 야외활동 시 방수 기능은 물론 쉽게 오염되지 않도록 만들었으며, 2.5cm 두께의 스폰지가 내재돼 있어 편안한 쿠션감을 제공한다. 가격은 2만9900원. 컬러는 네이비와 핑크 2종이다.

G마켓 옥션, 금천한우 라이브커머스 진행

G마켓과 옥션은 9일 오후 8시부터 최고급 한우 브랜드 '금천한우'의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1등급 한우를 최대 39% 할인가에 판매한다. 진행자인 신동과 이준호 쇼호스트의 한우 먹방도 선보일 계획이다. 행사는 실시간 예능형 라이브커머스 '장사의 신동'을 통해 진행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 도매 온라인몰 금천미트의 30년 노하우가 담겨있는 '1+ NO.9 한우'와 '1등급 한우' 200g 제품 8종을 판매한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donga.com

삼성 vs LG '게이밍 모니터' 시장 격돌

삼성 오딧세이 G9, 미니 LED 적용
LG 울트라기어, '지싱크 얼티밋' 지원

삼성전자가 LG전자가 비대면 트렌드로 커진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맞붙었다.

삼성전자는 최근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에 미니 LED를 적용한 '오딧세이 Neo G9'을 출시했다. 크기는 49인치이며, 기존 LED보다 40분의 1 크기로 작아진 '퀵텀 미니 LED'를 광원으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 독자적 화질 제어 기술인

'퀵텀 매트릭스'와 '퀵텀 HDR 2000' 등을 탑재해 최고의 화질을 구현했다. 출고가는 240만 원이다.

이 제품은 해외 매출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영국 IT 전문 매체 트라스티드 리뷰는 '추천 제품 리스트에 올랐고, 미국의 IT 전문 매체 테크아리스는 '에디터스 초이스 2021'로 선정했다.

오딧세이 Neo G9은 지난달 29일 국내에서 카카오페이커스를 통해 진행된 사전 판매 물량 200대가 1시간 만에 완판됐다. 9일부터는 온라인 오픈 마켓을 통해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는 LG전자의 'LG 울트라기어'(왼쪽)와 삼성전자의 '오딧세이 Neo G9'. 사진제공 | LG전자·삼성전자

정식 판매를 시작한다.

LG전자도 최근 게이밍 모니터 'LG 울트라기어' 34인치 신제품을 선보였다. 엔비디아가 인증하는 디스플레이 기술 중 최상위 버전인 지싱크 얼티밋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1ms 응답속도, 최대

180Hz 주사율을 구현했고, 나노미터(10억 분의 1m) 단위 미세 입자를 백라이트에 적용한 '나노 IPS 디스플레이'와 WQHD(3440x1440) 해상도를 통해 풍부한 색을 표현한다. 출고가는 169만 원이다.

김명근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9일 (월) 음력: 7월 2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다. 음주가무를 피하라. 오늘은 반안일이다.	무슨 일이나 자신감이 충분하여 실수하기 좋은 날이다. 좌충 우돌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 수가 많다. 애매한 전망으로 일을 시작하다보면 반드시 중도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신중한 자세만이 앞날을 밝게 할 것이다. 오늘은 화개일이다.	민둥산에 심어진 모목들이 점차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온산을 초록으로 덮는 것처럼 점진적 발전을 할 때이다. 서서히 나아가는 것이다. 급격한 성장은 바람 수 없으나 착실하게 순리를 따라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은 천살일이다.	감정 제어가 잘 되지 않는 날이다. 매사 일회일비 하다보면 사기를 당하거나 재난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진중 중인 일에 끝치가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교제비를 많이 쓸 수도 있다. 침착한 자세로 머리를 써라. 오늘은 월살일이다.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 나가면 상대가 움츠러든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라.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미가 보인다. 운이 막혔으니 바라지 마라. 오늘은 화개일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무슨 일에 있어서나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 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사가 흥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거나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걸릴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오늘은 월살일이다.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윽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어린 싹은 불이랑 계절과 강렬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견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취업시험 합격과 면과과의 거래성사가 있는 날이다.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걸린다.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져야 한다.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을, 주위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오늘은 천살일이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협력을 구하라. 오늘은 월살일이다.